

[2022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2022-보도-06)

대한응급의학 의사회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당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과 모든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혼란한 재난현장에서도 구조와 심폐소생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들과 현장과 응급실에서 최선을 다해 힘써주신 응급의료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재난은 안전의식의 부재와 안일한 대응으로 일어난 안타까운 재난입니다.”

재난의 특성 상 이미 사건이 벌어진 후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런저런 잘못들을 들춰내려는 목소리만 들릴 뿐 사건 당일에 그 혼란했던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구조활동과 재난대응활동을 벌인 응급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한 격려와 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무가 아님에도 기꺼이 재난현장으로 달려가고 참혹한 현장에 심리적 충격도 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근무에 투입되고 있는 응급의료진들에게는 현장의 충격보다도, 비난을 일삼는 언론 보도와 SNS의 근거 없는 비난에 더 큰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은 책임소재와 잘못들을 가릴 때가 아닙니다. 재난대응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전문가들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은 최선을 다하여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무엇을 바꾸고 준비해야 하는지 반성하고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재난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재난발생 이후 초기의 적절한 대응이 의료인들의 몫이라면, 이를 준비하고 지원하는 일은 정책당국의 책임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대한응급의학회, 재난의학회, 심폐소생협회등 유관단체들과 함께 우리사회의 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있던 것, 그냥 막연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냉철한 이성과 전문가의 자존심을 걸고 우리 실정에 맞게 바꾸어 나가려고 합니다. 문화와 환경과 의료체계가 상이한 외국의 지침과 대응방안을 무조건 우리나라에 들여온다고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맞는 우리만의 재난대응지침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재난은 없지만 동일한 실수는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응급의학 의사회는 정책당국에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운동경기, 공연, 스포츠 레저시설, 대중집회 등 다중의 인원이 모이는 곳에 의사를 포함한 의료지원계획 마련

다중이용시설이나 경기장, 스포츠 레저시설 등은 지속적으로 안전사고와 인명사고가 발생해 왔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는 아직까지 없었다. 육체적 접촉이 빈번한 스포츠 경기조차 선수에 대한 안전과 함께 관중들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역시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일상적인 공간들에 대한 안전진단과 재난대응 계획마련은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 ✓ 일정 숫자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심층 안전평가 실시
- ✓ 운동경기, 공연, 스포츠 레저시설 등에 단순히 의무실 마련이 아닌 의료인이 응급의료와 일차처치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과 계획 마련
- ✓ 군중집회, 축제 등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경우 예상인원에 따른 사전점검과 대책마련

2.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자격증 국가공무원 의무교육 및 일반인 교육강화

대한심폐소생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에서 지속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 및 유지자에 대한 보상이 없어 보급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외국의 경우 의료인 뿐 아니라 교사, 공무원 등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종에서는 심폐소생술 자격증이 의무화된 경우가 많으며 취업 시 인센티브를 주는 곳도 있다.

- ✓ 모든 공무원들(준공무원)에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격증 유지의무
- ✓ 모든 교육과정에 적합한 응급처치, 재난교육을 의무화하고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장려
- ✓ 심폐소생술 가능자에 대한 다양한 보상책을 마련하여 교육확대와 일반인 응급처치 능력 함양

3. 재난대응에 대한 국가 연구용역을 확대, 강화.

재난은 발생장소의 위치, 교통, 인구, 환경 등의 지리적인 요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각각 다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재난대응 계획마련은 책상 앞에서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고민과 연구의 근거들이 모여야 적절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외국에서 과거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연구와 고민의 결과 만들어진 대응책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재난 연구와 정책수립은 개인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 ✓ 재난대응 대책마련을 위한 기본적인 연구에 정부의 연구용역 확대 적용
- ✓ 응급의료 전문가들에 의한 실질적인 재난대책 마련과 시행
- ✓ 현 재난대응체계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향후 장기적 계획마련

“지금이야말로 정책당국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이번 일과 같은 재난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더 이상의 무의미한 희생양 찾기와 비난, 편가르기를 멈추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에 정치권과 정책당국이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응급의료현장은 지난 3년 간 묵묵히 우리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재난의료팀을 따로 구성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 당시 출동한 의료진들은 전날 당직 근무를 하고 쉬던 중 호출을 받아 나와서 재난현장에 투입되었고 대체인력이 없어 다음날 다시 응급의료현장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난대응에는 비용이 듭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과 투자만이 장래에 닥칠 재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사후대응으로 줄속대책으로 마무리되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면 안타까운 재난의 역사는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응급의학 의사회는 재난대응과 준비에 언제든지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책당국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빠르고 간단한 해결책은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느리더라도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대한응급의학 의사회

[내용감수 및 문의]

대한응급의학 의사회 회장 이형민 010-6357-4677, lee.hyungmin.em@gmail.com

대한응급의학 의사회 정책이사 김태훈 010-9656-1199, doctor78em@gmail.com

대한응급의학 의사회 대변인, 홍보이사 최석재 010-4100-9696, csj3814@naver.com